

11월의 기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장 4~5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조용기 총재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6. 2013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영혼-육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제일좋은교회, 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낙숙, 정경자, 오현주, 원소선, 이병중, 임철규, 김정환, 김양호, 한성희, 안희순, 이형준, 조종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나인규, 함석숙, 오주봉, 최인철, 한태성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처지로,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트는 무심코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이 그의 심령에 확 다가오면서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변화를 받고 그날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를 다 극복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뜨거운 소망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점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가구공장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크게 확장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베푸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뜨거운 감격으로써 시를 짓게 되었는데 찬송가 539장이 바로 그 시인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보잘것없는 일개 가구공장의 직공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고 또 찬송 시를 지어서 모든 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4차원의 영성으로 호주와 열방을 재정비하라

조용기 목사 초청 컨퍼런스.. 호주 퍼스에서 열려
20개국 목회자와 리더들 메시지에 폭발적 반응



조용기 목사 초청 '2013 세계 지도자 컨퍼런스'가 9월 25~26일 호주 서부 퍼스의 빅토리 라이프센터에서 '열방을 재정비하라(The Reshaping of a Nation)'는 주제로 성대하게 열렸다.

퍼스 최대 교회인 빅토리 라이프센터가 주최하고 DCEM이 후원한 이 컨퍼런스는 호주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정계와 재계 지도자와 20개국에서 온 교계 리더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입장료 200달러(한화 21만원)를 흔쾌히 지불하고 들어온 참석자들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고무되어 있었다. 이들은 4차원의 영성을 책과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했으며 4차원 영성의 이론을 펼친 주인공 조용기 목사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20개국에서 모인 교회 목회자와 리더들은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회 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 웃음과 감격 그리고 '아멘'으

로 응답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뜨거운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기 목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꿈을 품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 된다"고 말한 후 "마음의 캔버스에 꿈을 그려라. 나는 최대교회를 그렸다.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능한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꿈꾸고 기도하라. 꿈이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꿈에 불을 지폈다.

특히 조용기 목사는 참석한 리더들에게 "여의도에 교회를 세울 때 모래사장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다.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춥고 강을 건널 다리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꿈만 꿔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해 성령과 함께 꿈꾸는 목회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시키고 비전을 제시했다.

둘째 날 조용기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답이다. 성령님이 우

리의 생각, 꿈, 믿음, 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생각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선포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 기적을 선물하신다"고 설교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말씀에 앞서 순복음강남교회(담임 최명우 목사) 전통무용팀의 공연은 이번 컨퍼런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성회를 주최한 마가렛 코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조용기 목사님은 강한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을 벌인 세계적인 목회자이다. 나는 조 목사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고 나의 목회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소개한 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의 말씀이 호주와 열방의 큰 혼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가렛 코트 목사는 1960~70년대 테니스 선수로 활동할 당시 통산 62번의 우승과 3번의 그랜드슬램을 이룬 기록을 가진 인물이며 남편 베리 코트는 민주당 당수로서 활동 중이다.

마음 지키기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23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과 사명이 동시에 넘쳐납니다. 누군가는 가슴에서 넘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찬미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망의 세력이 넘쳐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과 절망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환경도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을 끊임없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1.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심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근심입니다. 근심은 정신질환의 원인이요, 우리의 마음을 파멸시키는 독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요 클리닉 병원의 창설자인 메이요 박사는 근심에 대해 “근심은 혈액 순환과 심장 및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로로 죽은 사람은 거의 못 보았지만, 근심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많이 해 과로로 쓰러져 죽는 것은 흔치 않지만, 근심을 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 분노, 불안, 공포, 불행 등은 삶을 파멸시키는 마귀의 독극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마라에 와서 물을 마셨지만, 그 물에는 독이 있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져 넣으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근심이 가득하여 쓰디쓴 독이 넘쳐날

때, 이를 달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면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달아져 근심의 독이 사라집니다.

2.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들

세상에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 감사, 평안, 소망 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찬미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합니다. 마귀가 오면 소망을 빼앗아버리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소망이 없이 우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옵소서”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폭풍이 다가오면 피난처가 되시고, 폭우가 내리면 피할 곳이 되시고, 마른땅에 시냇물이 되시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시는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등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 그것을 통한 만족과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으로 감사하면 말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우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보배요 유익이 됩니다.

3. 마음의 쓴 물을 달게 하는 것

오늘날 물질적인 환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빈곤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공허하고 버림받은 심정 등 쓴 독극물이 쏟아져 들어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삶은 공동묘지와도 같습니다.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극물을 다 제하여 주시고 놀라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면 그것들이 놀랍게도 우리의 앞날에 다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의 주머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과 기쁨도 주옵소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향기로 감싸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단단히 버티고 살아있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평생토록 품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에 끌어안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있으면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다니시고 업고 다니셨고, 이제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고 업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교회의 희망을 위한 기도대성회

69개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성회 동참해 간절히 기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갈망하는 8만 성도의 기도합성이 오색 물결을 이루며 10월 11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이번 성회에는 제25차 세계교회성장대회에 참석한 2400여 명의 외국 목회자와 리더들도 함께

해 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 당하는 세계 이웃들의 희망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월드컵경기장에 울려 퍼진 기도합성은 절망을 희망으로 꿈꾸게 했다.

이날 기도대성회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북한아동, 해외빈곤

아동 후원을 위해 6억 4000만원이 전달되는 행사도 열려 기도 성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성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행 2:14-24)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성령 침례를 받은 제자들에 의해 교회 시대가 열렸다”며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일어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생각과 믿음의 변화를 얻어 성령이 역사하실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희망의 강물이 흐른다”고 말한 조용기 목사는 “성령의 임재는 희망의 임재로 세계의 절망, 국가 사회 가장 개인에게 절망이 다

가와도 희망이 넘쳐나게 된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가 상암 경기장에 울려 퍼진 후 기도대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대표대회장 이영훈 목사의 인도에 따라 강단에 올라온 전교역자와 함께 한반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와 세계교회의 희망, 분쟁과 전쟁의 고통속에서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가득 넘칠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의 기도를 통해 참석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됐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교회의 희망을 위해 기도한 이번 기도대성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일깨워줬다.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헌신예배

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 제일좋은교회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10월,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경기도 안산지역과 수원지역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방문하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세계선교에 함께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10월 3일 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담임 이장근목사)의 금요철야예배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나의 하나님’(시편 91편 14-16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전하였다. 그는 자신의 간증과 함께 조용기 목사의 선교사역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며,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세계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10월 5일 제일좋은교회(담임 엄진용 목사)에 주일 예배 강사로 초청된 시가끼 시게마사 장



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시편 23:1-6)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인생의 나침반이자 항해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DCEM 헌신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세계선교 사역에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할 뜻을 고

무시키게 되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는 1000명 출석성도를 목표로 안산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일좋은교회는 1992년에 「순복음수원교회」 이름으로 창립 후 10주년을 맞아 「제일좋은교회」로 개명하였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